

우리는 이미 **변화의 길** 위에 서 있습니다.

#2030 #입시경쟁 #사교육고통 #해결 #대중운동  사교육걱정없는세상

■ 국가교육위원회가 추진해야 할 최우선 교육과제 촉구 기자회견 예고보도(2022.9.30)

10/5(수), 국교위가 추진해야 할 최우선 과제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 걱정)은 10월 5일(수) 오전 11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국가교육위원회가 추진해야 할 최우선 과제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지난 9월 27일 인적구성과 정치적 중립성과 관련된 여러 논란을 야기하며 국가교육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논란에 휩싸여 있지만 국가교육위원회의 설립 목적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그간 대한민국 교육은 정권에 따라 정책이 좌지우지되며 철학과 방향이 없이 표류해 반드시 필요한 정책도 일관되게 추진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국가교육위원회는 교육정책이 안정적이고 일관되게 추진되면서도 교육 본연의 목적과 취지에 맞게 운영되는데 정치적 이해관계가 개입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법률에 의해 설립된 기관입니다.

이제 국가교육위원회가 가야할 길은 너무도 분명합니다. 바로 대한민국 교육이 처한 문제를 직시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책과제를 채택하고 이와 관련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계획을 시의적절하게 추진하는 일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육이 직면한 가장 심각한 문제는 무엇입니까. 바로 경쟁교육 고통을 해소하는 일입니다. 대학생 10명 중 8명이 고등학교를 ‘사활을 건 전장’으로 인식하고 고등학생 3명 중 1명이 입시경쟁과 대학입시 스트레스로 자해와 자살을 생각하는 심각한 경쟁교육 고통을 국민 10명 중 8명이 국가가 나서서 해결하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국민의 요청이 분명한 경쟁교육 고통 해소가 말로 국가교육위원회가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야 할 과제입니다. 사교육걱정은 최근 대규모 설문조사를 통해 학생·학부모가 겪고 있는 경쟁교육 고통의 실태를 파악했습니다. 그리고 각종 캠페인을 비롯해 간담회와 국회토론회 등을 개최해 경쟁교육 고통 해소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이를 통해 논의되고 모색한 해결방안을 기자회견을 통해 국가교육위원회에 촉구할 예정입니다. 국가교육위원회 출범을 바라보며 교육의 발전을 위해 국민이 요구하는 최우선 과제와 대안을 촉구하는 자리에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행사명 : 국가교육위원회가 추진해야 할 최우선 교육과제 촉구 기자회견
- 일 시 : 2022. 10. 5(수). 오전 11시
- 장 소 : 정부 서울 청사 앞
- 주 관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 주요 내용

- 경쟁교육 고통 해소 방안 촉구
- 교사·학생 등 시민 발언
-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 면담 요청

2022. 9. 30. (사)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정지현, 홍민정)

※ 문의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대안연구소장 구본창(02-797-4044, 내선 511)